인터넷 공모 시민 1천여명 만장 행렬

盧 前대통령 국민장 어떻게 치뤄지나

11시 경복궁 앞 영결식…서울광장 노제

이명박대통령 유족 이어 두번째로 헌화

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(國民葬) 장의집행위원회가 28일 확정한 집행계획에 따르면 29일 열리는 국민장은 발인식-영결식-노제-화장-안치식 순으로 진행된다.

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유해를 실은 운구행렬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→서울→수원→봉하마을의 기나긴 여정을 거칠 예정이다.

◇봉하마을서 경복궁까지=29일 오전 5시 봉하마을의 마을회관 빈소에서 열리는 발인식은 유족과 운영위원회,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구와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인 견전(遣奠) 순으로 30분간 진행된다.

발인제에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캐딜락 운구차에 실려 고속도로를 거쳐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 마련된 영결식장으로 이동하게 된다. 경복궁까지의 운행코스는 경호보안 이유로 공개되지 않지만 남해고속도로→중부내륙고속도로→청원~상주고속도로→경부고속도로 코스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5시간20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◇경복궁서 영결식 엄수=영결식은 이날 오전 11시께 운구차량 행렬이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 마련된 영결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군악대의 조악 연주로 시작된다.

집행위는 영결식을 위해 5천여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지만 이 가운데 2천500~3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.

영결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대중·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한외교단과 조문사절 약 200명, 유가족과 관련 인사 약 800명이 참석한다. 또 장의위원 1천명과 각계 인사 및 시민 800명도 참석할 예정이다.

영결식에서는 송지헌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묵념, 고인의 약력 보고, 공동 장의위원장인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조사, 불교와 기독교, 천주교, 원불교의 종교의식이 이어진다.

이명박 대통령은 기본 절차가 진행된 뒤 마지막 조총 발사 직전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 이어 두 번째로 영정 앞에 헌화를 한다

이어 노 전 대통령의 행적을 기리는 생전의 영상이 대형 전광판을 통해 방영된다. 유족과 고위 인사 등의 헌화, 합창단과 해금 추모공연, 조가에 이어 삼군 조총대원들이 조총 21발을 발사하는 의식을 끝으로 1시간10분간의 행사가 마무리된다.

◇서울광장서 시민 애도 속 노제(路祭)=영결식이 끝나면 운구 행렬은 오후 1시부터 인도에 늘어선 시민의 애도 속에 세종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도보로 이동한다. 이어 덕수궁 대한문 앞 서울광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30분간 노제를 지내게 된다.

서울광장에서의 노제가 끝나면 운구 행렬은 다시 숭례문 앞 태평로를 거쳐 서울역까지 30분 정도를 도보로 이동하며 시민들의 배웅을 받는다. 또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 1천여명이 장의위가 준비한 만장(輓章)을 들고 뒤를 따른다.

◇화장후 봉하마을 정토원 안치=노제가 끝난 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다시 운구차량에 실려 오후 3시께 수원 연화장에 도착한다.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불교와 기독교, 천주교, 원불교 순의 종교의식 속에서 화장된다. 유족들이 수습한 노 전 대통령의 유골은 유골함에 담겨 다시 오후 9시께 봉하마을로 옮겨져 봉화산 정토원 법당에 임시로 안치된다. /연합뉴스

29일 서울 경복궁에서 엄수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을 앞두고 28일 관계자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〈사진 위〉. 국민장으로 치러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하루 앞둔 28일 경기도 고양시 유골함 전문제작업체에서 유골함이 만들어져 공개됐다. 북미산 향나무로 만든 유골함은 가로 35㎝, 세로 25㎝, 높이 20㎝, 두께 1.8㎝다〈아래〉. /연합뉴스

■盧 전대통령 영결식 진행순서

◇29일 오전 11시 개식(경복궁 흥례문 앞뜰)

식 순	비 고
영구차 도착 (오전 10시59분)	조악대 연주
개식(1분)	조악대 연주
국기에 대한 경례(1분)	애국가 연주
고인에 대한 묵념(2분)	조악
약력 보고(3분)	집행위원장(이달곤)
조사(12분)	장의위원장 (한승수, 한명숙)
종교의식(12분)	불교·기독교·천주교·원불교 순
생전영상 상영(4분)	
헌화(18분:유족, 주요 조객, 외교 사절 등)	조곡 연주·합창
추모 공연 (10분)	합창단, 해금 연주
조총(3분)	조총 발사 (21발)
폐식(1분)	조악대

서울광장 노제 사회 김제동

양희은·안치환·윤도현 노래

양희은, 안치환, YB(윤도현밴드) 등 대중가수들이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노래로 위로한다.

이들은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노제(路祭)의 '여는마당'에서 운구 행렬을 기다리는 추모객들을 상대로 무대에 오른다. 사회는 방송인 김제동이 맡는다.

양희은은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당시 홍보 영상에서 기타를 치며 부른 '상록수'를, 안치환은 '마른 잎 다시 살아나'와 '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'을 YB는 '후회없어' 등을 부를 예정이다.

노제를 준비해온 한 관계자는 "초대 가수 선정에는 노 전 대통령 유족의 뜻이 가장 크게 고려된 걸로 안다"고 밝혔다.

아울러 노제에서는 김진경 시인의 조시, 장시아 시인의 유서 낭독, 안숙선 명창의 조창, 진혼무 등도 진행된다.

노 전대통령 유골

49재 끝난후 안장

화장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골은 사저 뒤편 봉화산 정토원에 모셔졌다가 49재가 끝난 뒤 봉하마을에 안장된다고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8일 밝혔다.

노 전 대통령 묘 앞에 세워질 비석을 건립하기 위한 위원회도 이날 구성됐다. 위원장은 권양숙 여사의 요청에 따라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맡았다.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병욱 진실·화해위원회 위원장, 시인 황지우, 건축가 정기용·승효상 씨, 조각가 안규철 씨가 위원으로 참여한다.

위원회 명칭은 노 전 대통령의 유서에 있는 글귀를 따 '고(故) 노무현 대통령의 아주 작은 비석 건립위원회'로 정해졌다.

천 전 수석은 또 권양숙 여사의 향후 생활에 대해 "사저에서 떠날 계획이 없다"고 말했다.

21년 '盧의 운전사' 영구차도 운전

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 보내는 29일 국민장에서 영구차 운전은 1988년부터 지난 21년여간 노 전 대통령의 차를 몰았던 최영(45) 씨가 맡는다.

최 씨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노 전 대통령이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 통일민주당 후보로 부산 동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노 전 대통령의 차를 몰기 시작했다.

최 씨는 이후 제15대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(2000년 8월~2001년 3월)은 물론이고 1992년 국회의원 선거(부산 동구), 1995년 부산시장 선거, 1996년 국회의원 선거(서울 종로)에서 잇따라 낙선해 오랫동안 원외생활을 할 때도 변함없이 노 전 대통령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.

그러다 2003년에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하는 영예를 누렸다. 그는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도 온가족을 이끌고 봉하마을로 와 노 전 대통령의 차를 운전해 왔다.

그래서 그는 '노(盧)의 운전사'로 통한다. 봉하마을로 내려와서는 운전 뿐만 아니라 사저의 허드렛일까지 도맡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. /연합뉴스

서울광장 오늘부터 개방…시민 추모 허용

노제,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

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(國民葬)이 엄수되는 29일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이 시민에게 다시 개방된다.

노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의 정부측 집행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거행되는 29일 오전 7시부터 시민의 서울광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.

경찰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 23일 저녁 시민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행사를 하자 대규모 집회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서울광장을 경찰 버스로 둘러싸고 통제해 왔다. 정부는 또 전날 시민단체들이 노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를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하고 사용을 신청한 데 대해 "장의 세부 집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"이라며 허락하지 않은 바 있다.

그러나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엄수되는 29일에는 오전 7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또 이날 오전 11시 경복궁 앞뜰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 이어 오후 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약 30분간 치러지는 노제(路祭) 때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.

정부는 28일 밤까지 서울광장에 제단 등을 설치해 노제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.

정부는 노제가 끝나고서도 질서가 유지된다면 서울광장을 계속 개방할 계획이다. /연합뉴스